서영학 여수시장, COP31서 탄소중립 비전 제시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이클레이) 초청으로 참석…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11월 11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이클레이관 개관식에 참석해 '산업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 비전'과 'COP33 유치'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초청은 지난 10일 열린 COP3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지역 기후행동' 국제포럼에서 서영학 시장이 발표한 'NDC 이행을 위한 여수시 다층적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 사례'가 계기가 됐다.

발표를 들은 이클레이 세계본부 지노 반 베긴 사무총장은 탄소 다배출 산업도시인 여수가 정부·기업·시민 간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례에 주목해 당초 계획에 없던 특별 초청을 제안했다. 이에 여수시는 개관식에 참석해 여수의 탄소중립 전환 노력과 국제협력 경험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카트린 스티에른펠트 얌메 이클레이 세계회장(스웨덴 말뫼시장), 아나클라우디아 로스바흐 유엔해비타트 사무총장, 애론 브로켓 미국 볼더시장 등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와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서영학 시장이 함께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다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수의 산업적 특성과 탄소중립 전환 노력, 국제협력 경험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층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영학 시장은 "여수는 아름다운 해양관광도시이자 석유화학과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발달한 산업도시"라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2026유엔기후주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하며 국제협력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다"며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지역도시에서 시작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8년 COP33이 대한민국에 유치돼 여수에서 세계 지방정부 대표들을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며 "탄소 다배출 산업도시에서 탄소중립 녹색도시로 향하는 여수를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클레이(ICLEI·세계지방정부협의회)는 전 세계 125개국 2,500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제협력기구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서영학 여수시장이 이클레이 개관식에서 탄소중립 전환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2026년산 공공비축 미곡 포대벼 매입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지난 9일부터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매입을 시작하고 출하 농가에 40kg당 6만 원을 중간정산금으로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벼 40kg으로 환산해 12월 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확정한다. 시는 가격 확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금 일부를 먼저 지급해, 수확기 영농비와 생활비 부담이 큰 농가의 자금 사정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품종 혼입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를 운영한다.

매입 현장에서 표본 시료를 채취해 검정하며, 다른 품종이 섞인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하 농가는 수확부터 건조, 보관까지 전 과정에서 다른 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KTR과 손잡고 미래이차전지 원료·소재 실증 기반 구축 협력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11월 12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미래이차전지 원료·소재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이차전지 원료·소재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189억 원을 투입해 광양 세풍산업단지 내 KTR 광양분원에 806㎡ 규모의 실증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차세대 이차전지 원료·소재의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KTR의 전문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를 지원한다. 광양시 소재 기업은 KTR의 시험수수료와 사업장비 이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시험·평가와 장비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고체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센터를 조성하고, 시험·평가 장비 39종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TR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연구개발과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은 우수한 원료·소재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 인프라에 달려 있다"며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험수수료와 장비 이용료 감면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광양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화초사거리」 통해 지역 소리 유산의 가치를 재조명

곡성군은 지난 11월 4일 빛마루센터 3층에서 '사당패의 흥을 품은 곡성 소리 「화초사거리」'를 개최하고,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인 '구석구석 문화요일'의 마지막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 김요순 곡성군의회 의장, 임원자 곡성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 정인관 곡성군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문화 리더, 문화예술계 인사 등 90여 명이 참석해 곡성이 품은 소리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번 행사는 옥과 출신 소리꾼 신방초 선생을 재조명하고, 「화초사거리」의 예술적 가치와 지역 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 해설과 대담을 결합한 렉처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해, 관객들이 소리를 감상하는 데서 나아가 작품에 담긴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소리공방 작당 소속 소리꾼과 기악 연주자들은 「화초사거리」 전곡을 비롯해 이 작품의 영향을 받거나 관련 대목이 등장하는 소리를 선보였다. 관객들은 다양한 소리를 통해 「화초사거리」가 판소리와 민요에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살펴보며, 곡성의 소리 유산이 지닌 예술적 가치를 되짚었다.

이윤선 강연자와 사회자는 해설과 대담을 통해 곡성 예인들의 문화적 계보를 소개하고, 「화초사거리」를 오늘날 문화콘텐츠의 원형으로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짚었다. 특히 전통예술을 과거의 유산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동시대의 창작과 문화콘텐츠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살폈다. /이일규 기자

구례군장애인복지관 – ESG경영 지역사회상생프로그램

구례군장애인복지관(관장 주진영)과 농협구례군지부(지부장 곽형환)는 지난 11월 11일(수) 농업인의날 오전 구례체육관에서 구례지역 8개 읍·면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쌀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례지역 쌀 소비 촉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지속적인 쌀 소비를 통해 지역 농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특히 최근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쌀의 우수성과 소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는 구례군수님을 비롯한 구례군 의회 관계자, 지역주민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해 지역 쌀 소비 촉진에 뜻을 모았다. 이 행사에서 농협구례군지부는 지역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으며,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쌀로 정성껏 만든 가래떡을 준비해 행사장을 찾은 지역주민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가래떡을 함께 나누며 우리 쌀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지역 농업과 경제에 관심을 갖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히 쌀 소비를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 공공기관과 복지기관, 농업 관련 기관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우리 쌀의 소비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심선섭 기자

